

청일전쟁 후 중국인의 일본 군사 시찰과 군사 유학*

— 동유일기(東游日記)를 중심으로

조세현**

【목 차】

1. 들어가며
2. 청국 관신(官臣)의 군사 시찰
 - 1) 육군 분야
 - 2) 해군 분야
3. 청국 청년의 군사 유학
 - 1) 육군: 성성(成城)학교와 진무(振武)학교
 - 2) 해군: 상선(商船)학교와 해군병(海軍兵)학교
4. 나오며

【초록】

청일전쟁 후 국방건설에서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서양을 모델로 배우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일본을 새로운 모델로 삼으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일본의 제도를 참고해 군사 기구를 재정비하거나, 일본에서 새로운 군함이나 무기를 구입하거나, 일본인 군사 교습을 초빙해 중국의 군사학교에 파견한 일 등이 그것이다. 청국 관신(官臣)들은 일본 측 요청으로 일본군 군사훈련을 관람했을 뿐만 아니라 병기공장과 군사학교를 참관하면서 학제, 설비, 교과 내용 등을 파악하였다. 그들이 방문한 군사와 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소개와 설명이 동유일기(東遊日記)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따라서 동유일기는 청국인의 일본 시찰 뿐만 아니라 일본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부경대학교 연구년 교원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shcho@pknu.ac.kr)

유학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본문에서는 우선 군사 시찰(육군, 해군)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고, 군사 유학(육군, 해군)을 중심으로 정리 분석하였다.

【키워드】 청말, 동유일기, 군사 시찰, 군사 유학, 육군, 해군

1. 들어가며

근대중국에서 외국으로 유학한 세 번의 고조기가 있었다고 한다. 양무운동 시기 구미 열강을 학습한 것이 첫 번째이고, 청일전쟁 후 일본을 학습한 것이 두 번째이며, 러시아 10월 혁명 후 소련을 학습한 것이 세 번째이다. 구미와 소련으로 유학한 풍조는 이미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으나 일본으로 유학한 사건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였다. 일본학습의 경우도 주로 청국 유학생에만 주목했으며, 청국 관신(官臣)들이 일본 사회를 고찰한 연구는 별로 많지 않다.¹⁾ 특히 군사 분야의 시찰과 유학에 대한 관심은 더욱 적은 편이다.

양무운동 시기 대양을 건너 구미로 건너간 여러 출사대신(出使大臣)과 유학생의 주요 임무는 근대 해군 건설을 위해 힘을 쏟는 것이었으며, 청일전쟁 이후 중국 청년의 일본 유학은 군사 분야를 넘어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일본 시찰과 유학의 경우 군사 시찰과 군사 유학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며,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당시 장지동(張之洞)은 “출양 1년이 서양 서적 5년을 읽는 것보다 낫다.”라거나 “외국학당에서 1년 공부하는 것이 중국학당에서 3년 공부하는 것보다 낫다.” 혹은 “유학하는 국가는 서양이 일본만 못하다.”라고 말해 일본 유학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²⁾

청말 유학생 연구는 과거에도 몇 권의 연구서가 있었지만,³⁾ 상대적으로 청국 관신들의 일본 시찰 연구는 부족하다. 하지만 관리들은 관직에 있어서 사회 경험이 풍부해 젊은 유학생에 비해 구미 사회나 일본 문명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근대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세력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일본 시찰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의 경우도 일본으로의 군사 유학 특히 해군유학에 대해서는

1) 劉學詢(1899年), 『考察商務日記』(緒文)(『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p.17. (본고에서 저자명 뒤의 연도표시는 일본을 여행한 시기를 가리킴)

2) 張之洞, 『勸篇編』(外篇), pp.5-6. (王曉秋, 『近代中日文化交流史』, 中華書局, 2000, p.348 재인용).

3) 청말 유학생 연구로는 瞿立鶴, 『清末留學教育』, 三民書局, 1973. 黃福慶, 『清末留日學生』,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75. 董守義, 『清代留學運動史』, 遼寧人民出版社, 1985年. 舒新城, 『近代中國留學史』, 中華書局·上海書店, 1989. 陳瓊瑩, 『清季留學政策初探』, 文史哲出版社, 1989 등이 있다.

다른 주제들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였다.⁴⁾

기초자료를 살펴보면, 왕보평(王宝平)은 각종 동유일기(東遊日記)를 종합, 교육, 군사, 정법, 농공상, 창수(唱酬) 등으로 분류해 『만청동유일기휘편(晚清東游日記匯編)』이란 제목으로 상해고적출판사에서 영인 출판했는데, 현재까지 청일 문인들의 문학 교류와 청국인의 일본 군사 고찰기 관련 자료집을 확인할 수 있다.⁵⁾ 그 가운데 『일본군사고찰기(日本軍事考察記)』에는 청말 광서 연간의 군사 사료 여섯 종을 모아놓았는데, 요문동(姚文棟)의 『일본지리병요(日本地理兵要)』, 정홍신(丁鴻臣)의 『사천과 부동영유역열조일기(四川派赴東瀛游歷閱操日記)』, 정홍신의 『유역일본시찰병제학제일기(游歷日本視察兵制學制日記)』, 심익청(沈翊淸)의 『동유일기(東遊日記)』, 전덕배(錢德培)의 『중유동영열조기(重游東瀛閱操記)』, 무명씨의 『부일관조보고서(赴日觀操報告書)』 등이 실려 있다.⁶⁾ 특히 근래에 나온 종숙하(鍾叔河) 등이 주편한 『주향세계총서(走向世界叢書)』(일백종(一百種) 중에는 대표적인 동유일기가 모아져 있어 이번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었는데, 앞서 정홍신과 심익청의 동유일기도 이 시리즈에 포함되어 있다(<참고문헌> 목록 참조).⁷⁾ 동유일기의 엄청난 분량에도 불구하고 군사 분야는 자료의 특성상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여기서는 위에서 열거한 대표적인 군사 시찰기를 분석할 것이다.

청일전쟁 이후 중국인의 동유일기는 일본 시찰단 뿐만 아니라 일본 유학생과도 관련이 깊다. 일본 학무를 고찰한 기록, 유학생을 호송해 일본에 건너간 기록, 유학생 운동과 풍조의 기록, 유학생 개인의 일기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동유일기는 청국인의 일본 시찰과 유학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⁸⁾ 육군 연구는 군사 유학에 포함되어 어느 정도 소개가 이루어져 있지만, 그 시찰과 유학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지는 않았다. 그리고 해군 연구는 양무운동 시기 근대화 운동과 관련해서 무척 중요한 주제이지만 청일전쟁 이후 청국해군은 해외 학계는 물론이고 중국 내 연구도 많지 않다. 그나마 풍청(馮淸)의 저서가 대표연구가 아닐까 싶다.⁹⁾ 아래 본문에서는 동

4) 청말 중국 관신의 시찰과 중국 유학생의 연구현황에 대해서는 조세현, 「청일전쟁 후 동유일기(東遊日記)를 통해 본 일본 사회와 해양 문명」(미간행 논문)의 머리말을 참고할 것.

5) 王宝平 主編, 『晚清東游日記匯編』(2)(緒文), 上海古籍出版社, 2004, p.5.

6) 丁鴻臣의 『游歷日本視察兵制學制日記』는 앞의 책과 내용이 거의 같은데, 좀 더 간략하다. 글 중에는 일본 각종 학교 내용이 없어 초고본이 아닐까 싶다. (王宝平 主編, 『晚清東游日記匯編』(2)(解題), p.2) 그 밖에도 작자가 불분명한 『赴日觀操報告書』(1907)는 일본 군사 연습을 관찰한 보고서로 처음에는 목록, 제1편에는 훈련 전의 설비, 제2편에는 훈련 실기로 연습상황을 담았고, 곳곳에 도록을 달았다. (王宝平 主編, 『晚清東游日記匯編』(2)(解題), p.3)

7) 鍾叔河 主編, 『走向世界叢書』(第一輯), 岳麓書社, 1985; 鍾叔河·曾德明·楊雲輝 主編, 『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등.

8) [日]實藤惠秀 著, 譚汝謙·林啓彦 譯, 『中國人留學日本史』, 三聯書店, 1983, pp.116-117.

9) 馮淸, 『中國海軍と近代日中關係』, 錦正社, 2011.

유일기를 통해 군사시찰(육군, 해군)과 군사유학(육군, 해군)으로 나누어 정리 분석하고자 한다.

2. 청국 관신(官臣)의 군사 시찰

1) 육군 분야

청일전쟁 이전인 1879년에 왕지춘(王之春)이 정탐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남긴 여행기가 있다. 여기에는 일본의 군사 현황 관련 간단한 소개가 담겨있다. 그는 메이지유신은 군사 분야에서 성과가 가장 뚜렷하다며 공개자료를 기반으로 군사요새, 군사편제, 병력배치, 해군현황 등을 열거하였다.¹⁰⁾ 1884년에는 요문동(姚文棟)이 일본에 주재하면서 쓴 『일본지리병요(日本地理兵要)』가 있는데, 이 책의 제1권은 총론이고 제2권부터는 각 지방의 현황을 서술하였다. 본문에서 일본의 군사 지리 저작들을 정리했는데, 1874년 일본이 대만에 출병하고 다시 1879년 대만을 병탄하는 상황에 주목해 만든 책이다.¹¹⁾ 전쟁의 패배 이후 청국 관신들은 일본 군사력을 은근히 떨시하던 기존 관념을 버리고 육군과 해군 분야를 가리지 않고 궁금증을 가졌다.

청일전쟁 후 일본의 근대화가 성공했다는 사실을 자각한 중국인들은 전쟁 직후부터 일본을 시찰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육군 분야 시찰단으로는 정홍신(丁鴻臣)·심익청(沈翼淸) 일행의 동유일기가 대표적이다. 1899년 봄 일본육군에서 사천성으로 파견한 장교가 일본 근위사단이 거행할 예정인 추계 군사대연습 참관할 것을 청국 측에 요청하였다. 이에 무관 정홍신과 문관 심익청 등 일행 아홉 명을 일본으로 파견하였다. 그해 7월 가정(嘉定)을 출발해 다음 해 1월 귀국해 거의 반년 가까이 여행하였다. 군사훈련을 참관한 것 말고도 도쿄에서 각종 학교들을 시찰하고 교토, 오사카 등을 둘러보았다. 정홍신은 호남 장사 출신으로 사천제독이었으며, 그가 남긴 『동영열조일기(東瀛閱操日記)』(혹은 『四川派赴東瀛遊歷閱操日記』이라고도 부름)는 1900년 성도에서 출판되었다. 정홍신은 귀국 후 의화단운동이 일어나 팔국 연합군이 북경을 점령하자 군대를 이끌고 북상해 공을 세운 인물이기도 하다. 그리고 심익청은 복건 후관인으로 그가 남긴 『동유일기(東遊日記)』는 1900년 3월 복주에서 출판되었다. 심익청은 청말 양강총독을 역임한 심보정(沈葆楨)의 장손으로 복주선정대신이었

10) 王之春(1879年), 『談瀛錄』(『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pp.85-87.

11) 王宝平 主編, 『晚清東游日記匯編』(2)(解題), p.1.

다. 그는 복주선정학당 학생 몇 명을 데리고 상해에서 일본 선박 산성환(山城丸)을 타고 출양하였다. 이 책은 1899년 8월 복주를 출발해 11월 상해로 돌아오는 70여 일 동안의 일본 여행기이다.¹²⁾ 앞의 정홍신의 시찰일기와 서로 보완할 수 있다.

정홍신은 무관 출신이어서 동행했던 문관 심익청과는 일본 사회를 바라보는 관심 분야가 좀 다르다. 특히 군사 방면의 기록이 상세한 것이 이 책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모노세키 부근에서 항행할 때 외부인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포대 30여 곳을 발견하고는 메이지유신 초기에 서양인이 만든 포대를 설치하려고 하자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는 홀로 항의하면서 외국인의 손에 맡기는 것은 요지를 지키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사람을 유럽으로 파견해 포대 건축 기술을 배우게 한 후 귀국시켜 스스로 만들도록 했다. 결국 30년간 운영하면서 일본 요새는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설명했다.¹³⁾ 정홍신은 본래 방일 목적이었던 근위사단의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묘사했다. 남북 두 개 부대로 나누어 기병과 보병이 모의 전투를 하거나 남북부대가 합동훈련을 하는 모습 등이 포함되었다.¹⁴⁾ 이와 달리 심익청의 일기는 상대적으로 군사 분야 말고도 상공업은 물론 학교 제도에 대해 상세하였다.

정홍신 일행은 나가사키, 시모노세키, 고베, 나고야, 시즈오카(靜岡), 누마즈(沼津), 도쿄, 교토, 오사카 등 여러 도시를 다니며 요코스카(橫須賀)조선창, 오사카포병공창, 오사카조폐국, 내각인쇄국 등과 같은 산업시설과 성성학교, 육군지방유년학교, 중앙유년학교, 호산학교, 군의학교, 기병실시학교, 사관학교, 경찰감옥학교 등 군사학교 및 이과학교, 의과대학, 도쿄대학 등 일반학교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근위보병 제3연대, 근위기병대대, 중야철도대대, 근위공병대대, 근위야전포병연대 등 다양한 부대를 찾았으며, 현지에서 성대하게 치러진 천장절 열병식, 체육조정 경기대회, 사관학교 졸업식 등에도 참석해 일본의 군사계, 정치계, 경제계 인물들을 만났다.¹⁵⁾ 그들은 군사훈련은 물론 육군과 해군부대 및 군사학교 등을 고루 시찰했는데, 특히 호산학교(戶山學校)의 인상이 깊었던 듯싶다.

“최근 일본 군사제도의 뛰어난 실로 호산학교(戶山學校,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신식학문을 탐구하는 연구학교)에 근거한다. 오늘날 시국은 여러 열강이 병립해 날마다 더욱 새롭게 근본을 바꾸고 연마한다. 이에 대응해 널리 무관을 파견하는데 공사를 따라 각국에 주재하면서 전문적으로 현지의 병제를 살펴 고칠 것이 있으면 신식제도를

12) 王宝平 主編, 『晚清東游日記滙編』(2)(解題), p.2.

13) 丁鴻臣(1899年), 『東瀛閱操日記』, 『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pp.11-12.

14) 丁鴻臣(1899年), 『東瀛閱操日記』, pp.54-56.

15) 丁鴻臣(1899年), 『東瀛閱操日記』(緒論), pp.21-22.

만들어 육군성에 보고한다. 육군성에서는 교육기관에 명령하고, 교육기관은 호산학교에 명령한다. 이에 전국의 사단에 지시를 내려 다시 무관을 차례로 나누어 오도록 해서 공부시키며 그 신법을 연구한다. 결과가 좋으면 일본 병제에 적용해 변용하니 기존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반년 혹은 일 년을 공부해 완성하면 부대로 귀환해 그 제도를 가르친다. 따라서 만국의 신법이 비록 하루가 다르게 바뀌지만 국가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변하지 못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 이익을 배우고 폐단을 버리니, 최선을 만들 수 있어서 굴욕을 당하지 않는다.”¹⁶⁾

위와 같이 일본이 각국에 무관을 파견해 현지의 신법을 정탐하고, 부대가 대원을 파견해 군사학교에서 신법을 학습하고 연구한 후, 대원이 부대에 돌아가 신법을 전파하는 호산학교의 교육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여기서 신법에는 전술, 창검술, 체력훈련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심익청에 따르면, 메이지유신 후 일본 군인은 모두 학교에서 징병했는데, 그 병사들은 보통학교의 생도였다. 각 학교는 평소에 체조와 군사훈련을 가르쳤다. 정홍신 일행은 처음 일본에 왔을 때 나가사키의 한 공원에서 소학생들이 체조 훈련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 모두 군인의 소질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각 지방마다 특색이 있지만 일본 전체가 군사에 대해 알게 될 것이고, 일본이 강국이 된 도리는 실로 여기에 있다고 여겼다.¹⁷⁾ 이처럼 “교육제도는 군사제도의 근원”¹⁸⁾이라는 관점을 가졌다. 백 년 이래 서양 열강이 흥기하는 가운데 동양에서는 일본만이 분투했는데, 학당의 흥성이 병력의 강성과 서로 상응하였다. 이와 달리 청국의 경우 글자를 알지 못하는 장군에게 완고하고 교활한 병사들이 대응하니 상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았다.¹⁹⁾

일본방문 기간 중 일본인들은 여러 차례 심익청을 방문해 양국의 동문동종(同文同種)의 우정을 강조하며 청국이 육군을 훈련시키고 학교를 열 것을 권하였다. 그도 참모부와 외무성 등을 방문해 관리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심익청의 일기에는 일본군대의 가을 훈련을 명분으로 방문했기 때문에 이 훈련 상황 관련 내용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지만,²⁰⁾ 그밖에도 체류 기간 동안 일본군대와 군사학교 등을 고찰하였다. 일기에는 각종 부대구성, 연습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군사학교의 과정 설치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요코스카조선소를 방문해 일본이 서양에서 구매한 군함인 부사(富士), 천관(淺間) 등을 관람하였다.²¹⁾ 정홍신과 심익청의 동유일기에는 무술변법 이후부터

16) 丁鴻臣(1899年), 『東瀛閱操日記』, p.28.

17) 丁鴻臣(1899年), 『東瀛閱操日記』, p.27.

18) 沈翊清(1899年), 『東游日記』(札), 『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p.3.

19) 沈翊清(1899年), 『東游日記』(孫詒讓의 跋), pp.5-6.

20) 沈翊清(1899年), 『東游日記』, pp.51-53.

청말신정 이전까지 일본 육군 상황은 물론 청국인의 일본에 관한 생각이 담겨있기에 사료적 가치가 높다.

한편 정홍신 일행과 유사한 일본 군사 여행기로는 장대용(張大鏞)의 『일본무학병 대기략(日本武學兵隊紀略)』(1899년)과 정은배(程恩培)의 『동영관병기사(東瀛觀兵紀事)』(1901년) 및 전덕배(錢德培)의 『중유동영열조기(重游東瀛閱操記)』(1901년)가 있다. 장대용의 책은 그가 1898년 절강무비학당 장가명(蔣嘉名) 등 네 명을 데리고 일본을 방문했을 때, 군사학교와 부대를 참관한 기록이다. 각종 군사학교와 연대를 방문한 17편의 내용이 담겨있다. 성성학교, 육군지방유년학교, 육군중앙유년학교, 사관학교, 육군대학교, 호산학교, 승마학교, 포공학교, 경리학교, 교도단, 정병략, 근위보병 제1연대, 기병 제1연대, 야전포병 제1연대, 근위공병대대, 근위치중병대대, 해군기관학교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그가 육군유학생을 입학시킨 (후술할) 성성학교(成城學校)는 일본 군사학교로 육군사관학교의 예비학교이기도 하다.²¹⁾

전덕배의 책은 일본 센다이(仙臺)에서 열린 군사대연습에 장국계(張國桂) 등을 인솔해 일본으로 건너가 고찰한 책으로, 1901년 9월에 상해를 출발해 다음 달 돌아오기까지 일본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적었다. 그의 일기에는 일본의 군사대연습은 물론 성성학교, 호산학교, 육군포병학교 등을 비롯한 일본 군사학교와 각종 군수공장 등을 견학한 기록이 남아있다.²²⁾ 그리고 정은배의 책도 전덕배와 마찬가지로 1901년 9월 일본 군사대연습의 시찰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경험했던 내용을 일기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는 군관 출신이어서 군사 훈련을 참관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교육이 우선이고 무비는 다음”이라고 생각할 만큼 교육이 군사의 기초라고 여겨 많은 학교들을 참관하였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기도 했고, 육군포공학교에서는 매년 여러 명의 우수 학생을 선발해 유럽 여러 나라에 유학시킨다는 얘기도 들었다.²³⁾ 이런 군인 출신의 동유일기 말고도 관리 출신의 여행기에도 군사학교를 시찰한 기록이 종종 보인다.

1902년에 일본을 방문한 쌍도(雙燾)는 몽골인으로 장지동이 파견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학생 감독 신분으로 일본교육을 고찰하고 『동영소식(東瀛小識)』을 남겼다. 그

21) 沈翊清(1899年), 『東游日記』(緒文), pp.18-19.

22) 呂順長, 『清末浙江與日本』, 上海古籍出版社, 2001, pp.159-164. 呂順長, 『清末中日教育文化交流之研究』, 商務印書館, 2012, pp.62-69 참고.

23) 錢德培는 제4차 주일공사인 黎庶昌의 參贊으로 일본에 머문 적이 있기에 ‘重游’라는 제목을 달았다. 錢德培는 이 책의 끝에서 말하길, 장차 관제와 봉록부터 해군과 육군제도까지 전문 서적을 몇 권을 구해 번역하려는데, 그 국정을 기록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두 번째 여행은 비록 시간이 부족하지만 정확하고 상세해 믿을 만하다고 자신했다. (錢德培, 『중유동영열조기(重游東瀛閱操記)』(1901년)(王宝平 主編, 『晚清東游日記匯編』(2), p.435)

24) 呂順長, 『清末浙江與日本』, 上海古籍出版社, 2001, pp.165-167.

런데 이 일기에는 군사교육 관련 기사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그가 참관한 학교 중에는 성성학교, 육군사관학교, 포공학교, 호산학교, 기병실시학교, 육군대학교, 군의학교, 육군경리학교 등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보병 제1연대, 기병 제2연대, 근위야전포병연대 등 육군성 관할의 부대들도 참관하였다. 그는 일본 정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된 사람을 신사에 모셔 정중하게 대우하므로, 청년들이 나이가 되어 군인이 되더라도 부모가 기뻐하고 친척과 친구들이 축하한다고 썼다. 이처럼 일본인들이 군인을 대우하는 방식이나 군 복무를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²⁵⁾ 청국 관신들은 일본이 “사람마다 보국의 뜻을 가지고, 집집마다 전사를 영예로 생각하며, 상무가 기풍을 이루는데, 상무는 교육에서 비롯된다.”²⁶⁾고 보았다.

1903년에 일본을 방문한 무전손(繆荃孫)은 “육군에는 사관학교와 유년학교가 있다. 유년학교는 보통중학 수준과 비슷한데 육군의 예비병력 성격이 짙다. 유년학교를 졸업하면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육군직책을 맡을 수 있는데, 참모부 요원이 되고 싶으면 육군대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라고 썼다.²⁷⁾ 같은 해에 일본을 방문한 왕경희(王景禧)는 일본 천황이 직접 군복을 입고 군마를 탄 채 기병, 보병, 포병을 사열하거나 군사 연습을 관람하는 일이 일상적이라는 사실에 놀랐으며, 장교와 사병 모두 국민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충군애국의 사상이 충만하다는 인상을 받았다.²⁸⁾

20여 년 전인 1881년 조선 정부에서 파견한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의 경우 양무파의 중체서용식 관점을 가졌기에 일본의 근대화 개혁에 대해 시비가 분분했는데, 군사 개혁에 대해서만큼은 한결같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²⁹⁾ 육군의 포병과 보병, 해군의 군함이 항상 전투에 나갈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평가는 청일전쟁 후 청국 정부가 파견한 시찰단의 생각과 비슷하였다. 단지 일본이 수용한 서양식 군사제도, 무기체제 및 전투방법 등 이면에 깔려있는 근대적 제도와 정신의 이해 수준은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2) 해군 분야

청일전쟁 후 중국의 해군 인제는 다수가 부상을 입고 사람이 유실되어 겨우 명맥을 유지하였다. 좀 안정이 되찾자 옛 해군 인재들의 복귀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25) 雙燾(1902年), 『東瀛小識』(『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pp.130-131.

26) 姚鵬圖(1903年), 『扶桑百八吟』(『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p.59.

27) 繆荃孫(1903年), 『日游滙編』(『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p.19.

28) 王景禧(1903年), 『日游筆記』(『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p.79.

29) 허동현, 『근대한일관계사연구: 조사시찰단의 일본관과 국가구상』, 국학자료원, 2000, pp.124-126.

원세개의 역할이 컸던 사실은 흥미롭다. 그는 육군유학뿐만 아니라 해군 건설에도 관심이 많아 살진빙(薩鎮冰)을 해군 재건의 책임자로 추천하였다. 살진빙이 남북양 해군제독으로 임명되자 해군 재건 사업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고위 해군 장교였던 위한(魏瀚)도 해군력을 회복하는 일에 참여했는데, 사람의 부족으로 일부 육군 인재를 뽑아 해군에 충당하였다.³⁰⁾ 전쟁 패배 후에 청국해군이 사라진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신해혁명으로 청국이 멸망하는 순간까지도 함선구입, 함대재편, 군정기구 정비, 인재양성 등 해군재건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그 가운데 일본해군을 본받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일본해군의 최고기관은 해군경(海軍卿)을 중심으로 한 해군성(海軍省)인데, 군함을 건조하고 장교를 파견하며 항구와 해안을 방어하는 일 등을 맡는다. 해군성 아래는 해군병학교, 해군조선국, 해군수로국, 해군재판소 등이 있다.³¹⁾ 나진옥(羅振玉)의 일기(1901년)에 따르면 일본 군함의 수는 103척이다. 갑오 이전에 일본 군함은 불과 30척으로 배수량이 5,700여 톤에 불과했지만, 지금 군함 수는 몇 배로 증가했고 배수량도 26,285톤으로 증가하였다. 해군에 소속된 현역군인은 28,308명이고 예비군은 2,995명이며 후방병력은 1,678명이다. 그들의 임무는 유사시에 해안을 방어하고 적군을 공격하거나 육군을 호송하며, 평소에는 해외 상민이나 국내 어민들을 보호한다. 아울러 해만을 측량하거나 연해를 경호하고, 해안과 도서를 관리한다.³²⁾ 이처럼 일본해군의 발전을 수치로 기록하였다. 엄수(嚴修)의 여행기(1902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해군을 1,200만 톤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매 톤에 천 원(元)이 들어가며 12년을 기한으로 삼았는데, 이를 계산하면 매 해 2천만 원씩 증액해야 한다. 정부가 해군정비를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정부와 내각 간에 논쟁 중이라고 썼다.³³⁾

일본육군을 시찰했던 정홍신 일행은 비록 육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해군 기록도 적지 않게 남겼다. 상해에서 출발할 때부터 일본 군함 고웅(高雄), 용진(龍田)을 참관하면서 영국에서 만든 군함들이지만 일본이 개조해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근래 건조하는 큰 군함은 만 톤도 넘지만 그 선체 대부분을 서양에서 구매해서 자신들이 개조하는데, 이는 일본의 철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정신흥은 일본해군은 육군과 같은 군사훈련을 받아 육지전투에 대비하므로 기율이 엄격하다고 썼다.³⁴⁾ 그는 일본 현지에서 체육회 주관 요트경기 창립대회

30) 馮青, 『中國海軍と近代日中關係』, 錦正社, 2011, p.67.

31) 해군병학교, 해군수로국, 해군조선소에 대해서는 黃遵憲, 『日本國志』(中)(『走向世界叢書』, 岳麓書社, 2016, pp.903-909)에 자세하다.

32) 羅振玉(1901-1902年), 『扶桑兩月記』(『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p.108.

33) 嚴修(1902年/1904年), 『東游日記』(『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p.89.

를 관람하면서 말하기를,

“처음 체육회를 창립한 취지는 비록 일본이 해양 국가이지만 학교에서 보병훈련만 시켜서 육군에 전력하지 해군을 홀시하니 장차 어찌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대개 구미 제국은 각자 병선을 가지고 태평양에서 경쟁하는데 동방의 여러 나라는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다. 일본의 다카후지 요시로(高藤吉郎)는 분연히 일어나 동지를 규합하고 이 단체를 창립하였다. 학교 사람들을 모아 항운 기술을 연마하고 국민들이 모두 해양에 익숙하도록 노력했다. 단체가 성립하자 일본 천황도 기뻐하며 2만 금을 기부하니 국가 전체의 관리, 상인, 신사들 또한 즐겁게 기부하였다. 자원이 충족해지자 점차 해군 자강의 기본이 세워졌다.”³⁵⁾

위와 같이 일본은 육군근대화가 자리를 잡자 해군 건설에 주목하였다. 정홍신 일행은 일본의 대표적인 해군조선소인 요코스카조선소를 참관하였다. 요코스카는 대표적인 군항이기도 한데, 해군 중장을 도독으로 삼아 해군출동부터 해군구 경비, 군항 방어, 15척 병선의 진퇴 등을 총괄한다. 이 항구는 일본에서 선박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항구로 청국의 여순항에 비교할 수 있으며 도쿄의 숨구멍이라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선소를 만들었는데, 30년 동안 3백여 척의 대소형 병선을 만들었고, 만 톤급의 배도 건조할 수 있다. 여기서 일행은 해군의 배려로 일본 군함들을 참관할 수 있었다. 일행이 참관한 부사함 등 두 척의 배는 모두 영국 암스트롱공장에서 만든 군함이었다. 정홍신의 일기에서 말하길, 일본은 독일육군을 본받아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자신감이 있지만 해군 경쟁력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인지 부사함 말고도 독일조선소에서 만 오천 톤급 포선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귀국 길에서 일본육군은 강성하지만 해군은 영국의 6분의 1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전력을 다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 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일기에 남겼다.³⁶⁾ 심익청의 일기에서도 이런 조선소와 군함들로 나날이 일본해군의 전력을 팽창시키고 있다고 했다.³⁷⁾

이준지(李濬之)의 『동우쇄기(東隅瑣記)』(1905년)에서는 일본의 해군 건설 관련 기사가 있다. 양무운동 초기에 청국 군함은 대부분 영국과 독일에서 구매하였다. 그 후 일본의 조선업이 크게 발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일본에서도 군함을 구매하였다. 일기 중에는 가와사키(川崎)철공장을 설명하면서 기계를 제조하는 일과 기선을 제조하는

34) 丁鴻臣(1899年), 『東瀛閱操日記』, pp.7-8.

35) 丁鴻臣(1899年), 『東瀛閱操日記』, p.31.

36) 丁鴻臣(1899年), 『東瀛閱操日記』(緒論), p.30.

37) 沈翊清(1899年), 『東游日記』, pp.31-32.

일을 하는 큰 공장이라고 했다. 두 개의 큰 선박 건조용 독이 있는데, 깊이가 2백 척이나 되어 큰 배도 수용할 수 있다고 썼다. 그리고 “(중국) 양강(兩江)을 대신해 어뢰정 네 척을 건조하는데, 두 척은 이미 완성하였다. 길이가 131피트, 배수량은 89톤, 시속 23해리”라면서 작자는 “우리나라 광산은 부유하나 공예가 발전하지 않아 다른 재능을 빌려 쓰고 있으니 매우 부끄럽다.”라고 한탄했다.³⁸⁾ 그리고 다른 날 일기에서 민영기업이 군수산업에 기여하는 것과 관련해 니시무라(西村) 철공장에서 만드는 것은 오로지 해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제조한다면서 관상(官商)이 연합해서 정교한 부품을 생산한다고 했다. 작자는 청국도 일본의 방법을 모방해 “일체의 제조를 분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렵고 큰 규모는 관(官)에서 창시하고 가볍고 간단한 것은 초상(招商)에서 담당하자.”라고 제안했다.³⁹⁾ 사실 민간기업에서 군수산업을 담당하는 것은 근대시기 구미와 일본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일로 무기의 혁신에 유리한 방식이었다.

근대국가 국력의 상징인 해군력을 중요시하여 관제 개혁 중에는 해군관할부서의 재건이 이루어졌다. 우선 1907년 해군처(海軍處)가 만들어지고 살진빙(薩鎮冰)과 재순(載洵)이 해군 부흥을 위한 ‘7년 계획’이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해군 유학생 파견과 해군학당의 설립이 포함되었다. 다시 1909년 7월 해군처가 육군부에서 독립해 주관 해군사무처(籌辦海軍事務處)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준비단계를 넘어 정식으로 해군대 표기구가 된 것이다.⁴⁰⁾ 선통(宣統) 시기 해군 재건 과정 중에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지배층이 해외 시찰에 적극적이었던 사실이다. 섭정왕 재풍(載灃)은 재순과 살진빙이 국내 해군 시찰을 마치자 곧바로 해외 시찰을 준비하도록 명령했다. 1909년 10월 11일 재순과 살진빙은 주미공사를 지낸 양성(梁城)을 막료로 삼아 17명의 수행원을 이끌고 상해에서 상선을 타고 유럽시찰에 나섰다.

시찰단은 11월 19일부터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을 방문하였다. 영국 체재 기간이 가장 길고 독일이 그 다음이었는데, 주지하듯이 영국은 전통적인 해군 강국이고 독일은 신흥 해군 강국이어서 청국이 군함을 구매하거나 해군 유학생을 파견할 경우 도움받았던 나라였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을 시찰하면서 해군재건계획을 세웠는데, 특히 해군력이 약한 나라가 수뢰 제조에 주력하는 현

38) 李潛之(1905年), 『東隅瑣記』(『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p.18.

39) 李潛之(1905年), 『東隅瑣記』, pp.23-24.

40) 宣統 원년인 1909년 해군을 진흥시키자는 논의가 일어 載洵을 해군대신으로, 薩鎮冰을 해군부대신으로 정했다. 籌辦海軍事務處를 설립하면서 남·북양군함을 정리해 巡洋함대와 長江함대로 나누었다. 程璧光이 巡洋함대를 통솔하고, 沈壽堃이 長江함대를 통솔하도록 했다. 그 해 7월 薩鎮冰과 載洵은 수행원을 데리고 직접 연강, 연해 각성을 조사하여 象山을 해군군항으로 정했다. (『載洵薩鎮冰出國考察海軍』(張俠·楊志本·羅樹偉·王蘇波·張利民 合編, 『清末海軍史料』, 海洋出版社, 1982, p.846))

상에 흥미를 보였다.⁴¹⁾ 청국해군의 재건을 위해 군함을 구매할 필요가 있었다. 영국에서는 신식 증기기관을 갖춘 고등훈련 순양함인 응서(應瑞), 조화(肇和)를 구매하고, 독일에서는 천강(川江) 포선인 신벽(新璧), 신진(新珍)과 구축함 장풍(長風), 복파(伏波), 비운(飛雲)을 구매하였다. 이탈리아에서는 구축함 경파(鯨波)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에서는 구축함 용단(龍湍)을 각각 구매하였다.⁴²⁾ 일행은 러시아의 시베리아철도를 통해 1910년 2월에 귀국하였다.

유럽 시찰에서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관해군사무처와 외무부는 다시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오진린(吳振麟) 주일대리공사와 일본외상에게 1910년 8월 24일 상해를 출발해 일본과 미국의 해군을 시찰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결성된 재순 시찰단은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절반씩 섞었으며, 청국에서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다시 미국에서 일본을 거쳐 청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을 짰다. 일본에서의 시찰 일정은 오고 갈 때 모두 2주간 체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⁴³⁾ 시찰 경로를 보면 미국으로 건너갈 때 일본방문은 비공식이었으며, 미국에서 돌아올 때 일본방문은 공식이었다.⁴⁴⁾

1910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일본해군에 대한 비공식방문은 상해에서 미국 윤선을 타고 나가사키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번 해군 시찰은 청국해군을 재건하기 위해 일본의 근대해군을 시찰해 학습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시찰 장소는 해군성, 군사령부, 해군요새, 군항, 함대 등과 같은 기관과 부대였다. 해군학교의 교육을 시찰하거나 해군공장과 민간조선소 등을 방문하는 것도 일정에 포함되었다.⁴⁵⁾ 재순 시찰단은 해군기관학교를 시찰해 청국 유학생의 숙소를 방문해 격려했으며, 곧이어 9월 4일 요코하마를 출발해 태평양을 건너 약 2주간 미국 일정에 들어갔다. 뉴욕에 도착해서 먼저 여러 조선소와 기계장을 참관하고, 뉴욕의 한 조선소에서 3천여 톤급 순양함 비홍(飛鴻)을 구매하였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현지에서 청국과 미국 간에 해군차관 관련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사실이다. 당시 청국과 미국은 해군 분야의 협력을 약속하고 미국차관을 빌어 장기적인 해군발전전략을 짰지만 신해혁명의 갑작스런 발발로 실행되지 못했다.⁴⁶⁾

41) 馮青, 『中國海軍と近代日中關係』, pp.104-105.

42) 陳悅 編著, 『辛亥·海軍-辛亥革命時期海軍史料簡編』, 山東書報出版社, 2011, p.32. 「載洵薩鎮冰出國考察海軍」(張俠·楊志本·羅樹偉·王蘇波·張利民 合編, 『清末海軍史料』, pp.846-847).

43) 馮青, 『中國海軍と近代日中關係』, pp.105-107. 馮青의 책 도표 「청조의 일본과 미국 해군시찰단 인원표」(p.106), 「청조 해군시찰단의 미국으로 가는 길의 일본시찰 일정표」(p.111), 「청조 해군시찰단의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의 일본시찰 일정표」(p.113) 등을 참고.

44) 姜鳴 編著, 『中國近代海軍史事日誌』(下), 三聯書店, 1994, p.272.

45) 馮青, 『中國海軍と近代日中關係』, pp.110-112.

46) 崔志海, 「海軍大臣載洵訪美與中美海軍合作計劃」, 『近代史研究』, 2006年第3期, pp.92-105.

미국해군을 시찰한 후 1910년 10월 6일 미국을 떠나 일본으로 향하였다. 청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하였다. 이번 일본 해군 시찰은 앞서 비공식방문 때보다 다양한 행사와 방문이 이루어졌는데, 청국 황족을 포함한 일행이라서 일본 측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당시 일본 해군 관리는 각 조선소와 군수기업을 참관시켜주었고, 현지 한 조선소에서 포선 두 척을 계약하였다. 1,6백 톤급으로 영풍(永豐)과 영양(永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런 군함은 의화단 운동 이후 청국이 가장 주목한 무기구매 활동이었다.

시찰 일정 가운데 해군 유학생과 관련한 일정 한 가지를 소개하면, 재순 일행은 10월 24일에 59명의 청국 유학생이 재학 중인 상선학교를 방문해 수업받는 모습을 시찰했으며, 이때 우등생이던 나치통(羅致通), 증광륜(曾廣倫) 등을 접견하였다. 재순과 살진빙은 일본 시찰 중 학업이 우수한 유학생 두 명을 해군 장교로 선발해 선정학교에 입학시켜 기관을 공부하도록 조치했다.⁴⁷⁾ 모든 공식 일정을 소화한 후 시찰단 일행은 청국 군함 해기(海圻)호를 타고 진황도로 출발하였다. 그해 겨울 주판해군사무처는 해군부로 승격되었고,⁴⁸⁾ 재순은 해군대신으로 살진빙은 해군총제(海軍統制)로 각각 임명되었다.⁴⁹⁾

3. 청국 청년의 군사 유학

1) 육군: 성성(成城)학교와 진무(振武)학교

청일전쟁의 패배 이후 의화단운동과 러일전쟁 등 연이은 충격은 중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시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전쟁 후 일본 유학은 매우 광범했는데, 육군, 경찰, 해군, 법정, 사범, 공업, 상업, 잠업, 토목, 철로, 측량, 제약, 물리, 화학,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 등 전 방위적이었다. 크게 나누어 보면, 법정계열, 사범계열, 과학계열, 군사계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는 교육, 실업, 법·행정 분야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군사계열 유학(육군유학과 해군유학)에 제한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47) 馮青, 『中國海軍と近代日中關係』, p.142.

48) 해군시찰단의 국내외 시찰은 결국 海軍部の 성립(1910년 12월 4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海軍部는 청일전쟁 전의 海軍衙門과는 다르며 籌辦海軍事務處를 개편한 것이다. (馮青, 『中國海軍と近代日中關係』, p.118)

49) 「載洵薩鎮冰出國考察海軍」(張俠·楊志本·羅澍偉·王蘇波·張利民 合編, 『清末海軍史料』, p.849). 馮青, 『中國海軍と近代日中關係』, pp.113-117.

청국 유학생은 주로 문과 과목을 선호했는데, 특히 법정 분야와 군사 분야는 유학생들에게 인기 있던 전공이었다. 이것은 당시 청국 내 정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1901년부터 청국이 신정을 추진하면서 관제 개혁이 이루어지자 법률과 정치 분야에 많은 인재가 필요하였다. 군사 분야 역시 신정의 핵심으로 대량의 재원을 투입해 신군을 확대하고 있었기에 군사 유학생을 많이 파견하였다.⁵⁰⁾ 실제로 관비 유학생 중 군사 분야가 가장 많았다. 청국관 리들은 일본육군이야말로 수십 년간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룬 나라라고 여겼다. 따라서 육군 유학생을 일본에 파견한다면 그 성과가 뚜렷할 것이라 믿었다. 원세개의 경우 독일육군이 가장 모범적인 군대인데, 일본이 독일군을 모방했기에 쉽게 강성해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홍신도 “일본은 일개 섬 나라일 뿐이다. 서양법을 모방해 부강을 이루었는데, 그 기세가 구미 여러 대국들과 서로 대등하니 풍속, 정교가 특별히 달라서가 아니다. 학교의 설립을 보고 군사의 근본을 알았다.”⁵¹⁾라고 한 바 있다.

청국인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군사 유학을 시작한 것은 1898년 무렵이었다. 우선 절강순무가 파견한 오석영(吳錫永), 진기채(陳其采), 서후덕(舒厚德), 허보영(許葆英) 등 네 명이 있었고, 거의 동시에 호광총독이 두 차례에 걸쳐 파견한 담흥패(譚興沛), 서방겸(徐方謙), 단란방(段蘭芳), 소성원(蕭星垣) 등 24명이 있었다. 그리고 남·북양에서 각 20명을 파견하고, 절강에서도 다시 8명을 파견하여 모두 70여 명이었다. 그 후에도 각 성에서 유학생을 계속 파견하였다. 예를 들어, 1902년 9월 북양대신 원세개(袁世凱)는 무위우군학당(武衛右軍學堂)에서 선발한 55명을 보냈고, 1903년 단방(端方)은 50명을 보냈으며, 산서순무도 20명을 파견했는데 모두 군사 유학생이었다. 이런 유학은 각 성의 절박한 필요에 따른 것이다.⁵²⁾ 일본 말고도 구미에 군사 유학을 보낸 경우도 약간 있었는데, 유학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다.

1898년 절강, 호광 육군 유학생들을 처음 일본으로 파견할 때, 일본육군에서는 우선 성성(成城)학교(‘衆志成城’의 뜻에서 유래)에 이들을 위탁해 교육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인의 경우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시험만을 쳐서 장교가 되기가 어려웠다. 이에 성성학교를 세워 예비 장교 재원을 키우므로 예과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사립학교로 무관 중에서 대장 혹은 중장이 주지했는데, 수업은 중학교보다 어려웠고 신체 훈련, 군사훈련을 특히 중요시하였다. 5년을 공부한 후 다시 고등과에 들어가 1년을 공부하면 시험을 통해 육군학교로 갈 수 있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전문학교를 입학할 수 있었다.⁵³⁾ 학교건립의 목적은 윤리로 심지를 굳건히 하고 체조로 담력을 단

50) 李喜所, 『近代留學生與中外文化』, 天津人民出版社, 1992, p.195.

51) 丁鴻臣(1899年), 『東瀛閱操日記』(拔), p.79.

52) 黃福慶, 『清末留日學生』,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75, pp.33-34.

련하며, 충군애국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정신교육을 제일로 삼았다. 그리고 한문, 서문, 지리, 역사, 산학, 박물, 화학 등을 공부해 지식을 계발하고 능력을 확장시키는 지식교육을 두 번째로 삼았다.⁵⁴⁾

일본으로 건너가서 군사를 공부하려는 청국 유학생들은 반드시 성성학교에서 예비교육을 받은 뒤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였다. 절강성에서 파견한 오석영 등 네 사람도 일본에 도착하자 육군부가 위탁한 성성학교에서 예비교육을 받았다. 당시 군사교육을 받는 청국인은 매우 소수였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기숙했으며 점차 인원이 많아 지자 학교 주변에 기숙사를 마련하였다. 1902-1903년 무렵 성성학교의 청국 유학생은 모두 200여 명이었으며, 그중 관비 유학생이 115명, 자비유학생이 77명이라는 통계가 있다.⁵⁵⁾ 따라서 일본을 시찰하던 관신들의 단골 방문지가 성성학교인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었다.⁵⁶⁾

1902년 성성학교를 참관한 쌍도의 일기에는 부현에서 설립한 학교이며, 문무 두 개의 예과가 있다고 했다. 학년은 5년이고 교과과정은 여러 개의 분반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반에는 한 명의 교습이 있는데 학생이 대략 30여 명이다. 청국 유학생은 백여 명이 재학 중이며 일본 학생은 5백여 명이 있는데, 모두 병부에서 관할해 규칙이 엄격하다. 일본 학생은 대부분 학교에서 숙식을 해결하지 않고 통학한다고 했다.⁵⁷⁾ 1903년 성성학교를 참관한 주학회의 일기에는 중국 학생 170명이 있었는데 일본 학생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아 분반을 나누었다. 북양학생 50여 명은 제4, 5반에 있다며 교칙을 준수하면 연대에 입학할 수 있다고 썼다.⁵⁸⁾ 같은 해 성성학교를 참관한 왕경희의 일기에는 중국 유학생 중에 육군을 배우려는 사람들은 모두 여기 있었는데, 최근 진무(振武)학교를 새로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일기 중에는 한 일본인이 성성학교를 설명하면서 혁명 사조의 유행과 혁명파의 출현에 따른 고심이

53) 丁鴻臣(1899年), 『東瀛閱操日記』, p.18.

54) 成城學校의 수업과정, 교육제도, 평가성적, 학교규칙 등에 대해서는 丁鴻臣(1899年), 『東瀛閱操日記』, pp.25-27. 沈翊清(1899年), 『東游日記』, pp.15-18 참고.

55) 陳瓊瑩, 『清季留學政策初探』, 文史哲出版社, 1989, pp.72-74. 黃福慶, 『清末留日學生』, pp.36-37. 1903년 成城學校가 더 이상 청국인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을 때까지 이미 175명의 청국인이 16개월의 군사 과정을 이수하였다([美]任達(Douglas R. Reynolds) 著, 李仲賢 譯, 『新政革命與日本-中國, 1898-1912』, 江蘇人民出版社, 1998, p.170)

56) 1901년 羅振玉이 귀국 선박에서 만난 일본 육군대위 小島米三郎과 대화를 나누던 중 청국 유학생들이 보통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데 유학 기간이 불과 3년이기 때문으로 그냥 귀국하는 것이 아쉽다. 만약 1-2년을 더 유학할 수 있다면 쓸모가 있을 것이라 했다. 그 말이 매우 설득력 있다고 회고했다. (羅振玉(1901-1902年), 『扶桑兩月記』, p.117)

57) 雙燾(1902年), 『東瀛小識』, p.127.

58) 周學熙(1903年), 『東游日記』(『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p.111. 周學熙는 오사카 주변의 한 항구에서 일본 군함을 참관하던 중 청일전쟁 후 빼앗긴 군함 平遠, 鎮遠을 목격하기도 했다. (周學熙(1903年), 『東游日記』 p.96)

옛보이는 대목이 있어 흥미롭다.

“본교는 중국 육군 학생을 가르치며, 순수하게 충의를 일으키고 학식과 기능을 주로 삼기 때문에 일체의 혁명이나 평등권과 같은 잘못된 주장을 결코 학생들이 듣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각 신문잡지의 말들이 정당하지 않으면 역시 열람을 엄격하게 금지시킨다. 국가가 군인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은 국가의 쓰임 때문이다. 만약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면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 방해를 준다.”⁵⁹⁾

일본 내 반청사조의 흥기에 따라 군사학교의 입학 조건이 까다로워진 사실은 이른바 성성학교 입학사건(成城學校入學事件)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1902년 7월 자비유학생 유원(鈕瑗) 등 아홉 명은 성성학교에 들어가려고 준비하였다. 그러나 입학 규정에 유학생은 일본주재 청국 공사의 보증을 받지 못하면 입학할 수 없었다. 청국 공사 채균(蔡均)은 아홉 명 학생의 입학허가서에 도장 찍는 것을 거부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재일청국 유학생들이 혁명을 도모하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 채균은 비밀리에 본국의 유학생 파견금지를 요청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유학생들은 자국 정부가 자비유학생의 군사유학을 막으려는 것으로 판단해 집단적으로 공사관에 난입하였다. 유학생들은 공사에게 도장 찍을 것을 요구했으나 공사가 끝내 허락하지 않자, 공사관에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농성하였다. 청국공사관은 일본 경찰을 불러 주모학생을 체포하자 양자 간 충돌이 더욱 격렬해졌다.⁶⁰⁾

성성학교 입학사건은 오여륜(吳汝綸)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인 아오키(青木)소장이 군사제도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성성학교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은 매번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육군에서 명령을 엄격히 하는 것이 핵심이듯, 학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장군이 군대에서 명령하는 것처럼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명령이 없는 군대와 같다. 몇 사람을 퇴학시키더라도 나머지 학생에게 경고해야 한다.”⁶¹⁾라고 말했다. 오여륜은 일본 관계자들을 만나고, 일본당국과 청국 공사 등과 교섭해 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청국은 그 해 9월 왕대섭(汪大燮)을 첫 번째 일본 유학생 총감독으로 임명해 파견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유학생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⁶²⁾ 이 사건의 전모는 이종당(李宗棠)의 동유일기에도 잘 나와 있다. 이종당은 1901년 양강총독의 명령을 받아 일본으로 학무 시찰을 갔는데, 그 후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하였다. 그는 매번 일본을 방문한 내용들

59) 王景禧(1903年), 『日游筆記』, p.110.

60) (日)實藤惠秀 著, 譚汝謙·林啓彦 譯, 『中國人留學日本史』, pp.353-377에 상세하다.

61) 吳汝綸(1902年), 『東游叢錄』(『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p.75.

62) (日)實藤惠秀 著, 譚汝謙·林啓彦 譯, 『中國人留學日本史』, pp.375-377.

을 일기에 담아 『동유기념(東游紀念)』(총 6책)을 만들었는데, 그 『동유기념』 제2권에 성성학교사건을 기록하였다.⁶³⁾ 그런데 채균 공사가 본국으로 귀국하자 아홉 명의 유학생은 다음 해(1903년) 1월 공사관 보증을 받아 정식으로 성성학교에 입학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유학생들의 승리로 끝났지만 훗날 일본 내 반청운동의 씨앗을 뿌린 사건이었다.

한편 1903년에 성성학교를 방문한 장건은 이 학교의 숙식이 가장 어렵고, 수업이 가장 힘들어 유학생들 사이에 성성학교의 명성이 가장 높다고 칭찬하였다. 하지만 청국 유학생 가운데 정치와 법률 및 군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관리가 되기 쉽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농공실업 분야는 실습과 과학이 있고 쉽게 관리가 될 수 없으며 국가 또한 장려하지 않는다고 우려하였다. 근래에 홍학의 필요성으로 실업이 강조되고 유학생들의 관심이 많아지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썼다.⁶⁴⁾

일본 정부는 1903년 7월 도쿄에 진무(振武)학교를 창립했는데, 이 학교는 전문적으로 청국 군사 유학생에게 예비교육을 시키기 위해 만든 학교였다. 따라서 성성학교에서 공부하던 중국인 유학생들은 모두 진무학교로 옮겨왔다. 진무학교가 세워질 무렵 방문한 왕경희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진무학교에는 청국인 학생이 80여 명이었으며 분반으로 나누어 교육받았다. 이 학교의 식당과 침식은 청결하고 법도가 있는데, 학감이 있어 관리 감독한다고 기록했다.⁶⁵⁾ 그 후 진무학교는 중국인 군사간부를 양성하는 예비학교로 일본의 육군사관학교 혹은 육군호산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통로였다. 과거에는 육군학교에 진학하려는 경우 모두 성성학교에 입학했으나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자 아예 진무학교를 창설해 이곳에서 육군유학생을 교육시킨 것이다. 졸업 후 다수의 유학생들이 사관학교에 입학했는데, 신해혁명 시기 대표적인 군사인재가 이곳에서 양성되었다. 예를 들어, 중화민국 시기 주요 군사 지도자인 장개석(蔣介石), 채악(蔡鶚), 손전방(孫傳芳), 염석산(閻錫山), 이열균(李烈鈞) 등이 그들이다.⁶⁶⁾

1905년의 출양오대신(出洋五大臣) 중 재택(載澤)의 『고찰정치일기(考察政治日記)』에는 일본 군사학교인 중앙유년학교에 이어 진무학교를 방문한 기록이 있다. 청국인

63) 成城學校入學事件은 한때 농성주동자였던 吳稚暉, 孫揆 등이 강제 귀국조치를 당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졌다. 당시 梁啟超의 『新民叢報』에도 사건이 실리는 등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日]實藤惠秀 著, 譚汝謙·林啓彥 譯, 『中國人留學日本史』, pp.353-354)

64) 張謇(1903年), 『癸卯東游日記』(『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pp.30-31.

65) 王景禧(1903年), 『日游筆記』, p.110.

66) 蔣介石이 가장 유명한데, 그는 袁世凱의 지원 아래 일본으로 유학 가서 振武學校에서 3년간 공부한 후 일본육군 제13사단에서 실습하였다. 모두 4년간 유학해 1911년에 끝났는데, 그 사이 혁명파의 일원으로 袁世凱의 반대편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일본 생활이 사상과 일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회고했다. ([美]任達(Douglas R. Reynolds) 著, 李仲賢 譯, 『新政革命與日本-中國, 1898-1912』, p.169)

육군 유학생을 위한 학교라면서 학생이 381명 있는데, 각 성에서 파견되었으며 모두 감독이 인솔했다고 썼다. 평일에는 감독이 학생과 접촉하지 않고, 학생 역시 감독에게 구속받지 않았다. 재택은 교장인 육군소장 후쿠시마 야스마사(福島安正)와 교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유학생들이 힘써 공부하고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애국심을 가지라고 충고했다.⁶⁷⁾ 재택 일행도 청국 학생들이 다수 방임이어서 일본 학생들과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처럼 진무학교는 창립 후 성성학교처럼 관신들의 단골 방문지가 되었다.⁶⁸⁾ 한국군(韓國鈞)의 『실업계지구십일(實業界之九十日)』(1906년)에 따르면,

“진무학교는 우리나라를 위해 특별히 설치한 곳으로 교육 기간이 1년 3개월이다. 졸업 후 우선 연대(聯隊)에서 연습한 후 다시 사관(士官)에 입학한다. 일본인이 연대에 입학하려면 반드시 중앙유년학교에서 5년 과정을 졸업해야 하는데, 1년 3개월은 부득이 단축시킨 것이다. 무비(武備)는 일국의 명맥을 위한 것으로 국위가 부진하면 상무정신을 우선해야 한다. 5년 과정을 1년 3개월로 단축한 것으로 간략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학교가 우리나라 유학생을 위해 전문반을 설치한 것은 그 이름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 교육의 권리를 외국인에게 맡겼으니 기이할 것은 없다.”⁶⁹⁾

청국인을 대상으로 한 진무학교와 달리 일본인을 위한 중앙유년학교는 그 생도들의 정숙함이 다른 학교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예과 3년, 본과 2년의 5년 과정을 마쳐야만 비로소 연대에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진무학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어쩌면 한국군은 진무학교가 청국 군사 인재를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본인이 청국이 강대해지길 원하지 않아 적당히 가르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을 수도 있다. 얼마 후 진무학교의 교육과정은 3년으로 연장되었다.

여패분(呂珮芬)의 『동영참관학교기(東瀛參觀學校記)』(1907년)에도 진무학교는 육군장성 후쿠시마 야스마사가 청국에서 일본으로 육군유학을 하는 사람을 위해 만든 학교라고 했다. 성성학교를 방문했을 때 유학생 명단 중에 세 사람의 유학생 포기명단을 보았는데, 진무학교 졸업생 명단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 처음 세 사람이 유학 왔을 때 성성학교에서 공부했으며 후쿠시마씨가 감독한 바 있었다. 육군성에서는

67) 載澤, 『考察政治日記』(『走向世界叢書』第1輯 第9冊), 岳麓書社, 1985, pp.583-584.

68) 文愷의 『東遊日記』(1907년)에서도 振武學校가 청국인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학교인데, 학생이 4백여 명이며 보통학과 교육을 받는다고 했다. 졸업한 후에는 聯隊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수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공부가 끝나고 귀국하면 군대에 취직할 수 있으며 유망하다고 썼다. (文愷(1906-1907年), 『東遊日記』(『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p.111)

69) 韓國鈞(1905年), 『實業界之九十日』(『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p.72.

진무학교를 만들어 청국에서 육군유학 오는 학생을 전담하고, 성성은 문과로 성격을 바꾸어 육군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진무가 만들어지면서 성성에서 육군대학까지 졸업한 자는 앞의 세 사람에 그치지 않았다.⁷⁰⁾

한때 청국은 자비유학생이 육군을 공부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나 주일공사 양추(楊樞)는 1904년 음력 1월 「주진겸관학무정형집(奏陳兼管學務情形摺)」을 올려 매년 일정한 수(2백 명 혹은 1백 명)의 학생을 파견해 육군 전문가로 교육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같은 해 음력 4월 연병처(練兵處)는 「육군학생분반유학장정(陸軍學生分班游學章程)」¹⁶조를 만들어 이 장정에 의거해 매년 각 성에서 선발한 100명의 학생을 일본으로 유학시키기로 했다. 나이는 18세 이상 22세 이하로 제한했으며, 진무학교의 유학경비는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육군을 지원하는 학생 수는 성성 학교 시대보다 많아졌으며, 전체인원은 대체로 고정되었다. 이 학교는 기숙사를 만들어 엄격한 규율 생활을 실행하였다.⁷¹⁾

청말 육군 유학생은 꽤 엄격한 과정을 통해 선발했는데, 이열균(李烈鈞)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북경 연병처에서 학생을 선발해 일본육군에 유학시키기로 결정하고 각 성에 일정한 수를 배당했는데, 강서성은 네 명을 배당받았다. 당시 이열균은 강서성 무비학당에서 공부 중이었으며, 성적이 우수해 강서순무의 추천을 받아 뽑힐 수 있었다. 북경에 도착한 후 전국에서 올라온 선발자들과 함께 시험을 보고 통과한 후에야 유학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출국수속을 밟았다. 그는 천진에 가서 직례총독 원세개의 면담과 훈시를 받은 후 일본 상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⁷²⁾ 이열균 등 육군 유학생 일행은 일본에 도착한 후 진무학교에 들어가 2년간 공부한 후, 다시 사국포병(四國砲兵) 제12연대에서 1년간 실습하였다. 그 후 일본사관학교에 다시 입학해 모든 과정을 이수한 후 졸업한 다음 비로소 귀국해 강서성의 신군장교가 되었다. 이런 코스는 일본 육군 엘리트 유학의 전형이며, 대체로 육군 유학생은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교육이 진행되었다.⁷³⁾

70) 呂珮芬의 여행기에는 振武學校 관련 별도 항목을 만들어 비교적 자세히 학교 과정을 소개하였다. (呂珮芬(1907年), 『東瀛參觀學校記』(『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pp.62-66)

71) 초기에 학생은 170-180명, 1907년에는 3백 명으로 증가하였는데, 3년제로 바뀐 영향으로 보인다. 1904년 졸업생은 49명, 1905년 121명, 1906년 202명 등으로 1911년까지 유지되었다((日)實藤惠秀 著, 譚汝謙·林啓彦 譯, 『中國人留學日本史』, pp.47-49). 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육군 참모 본부는 1903년에 振武學校를 만들어 전문적으로 청국 군사 유학생을 길렀다. 1903년 7월에 열어 1914년 학생 부족으로 문을 닫을 때까지 모두 1,000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振武學校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美]任達(Douglas R. Reynolds) 著, 李仲賢 譯, 『新政革命與日本-中國, 1898-1912』, p.171)

72) 董守義, 『清代留學運動史』, 遼寧人民出版社, 1985, pp.211-212.

73) 1908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청국 육군유학생 가운데 振武學校를 졸업하고 聯隊에 들어간 사람은 499명이고, 연대에서 실습 중인 사람은 75명이었으며, 士官學校에서 공부한 사람은 255명

이처럼 초기 군사 유학생들은 예비교육을 받은 후 대부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였다. 당시 군사학의 발전에 따라 전문분야가 세분화되어 육군사관학교 말고도 헌병학교, 경리학교, 측량학교 등 관련 기관들이 늘어났다. 육군사관학교만 하더라도 보병, 기병, 포병, 군수병 등으로 나누어졌다.⁷⁴⁾ 그런데 초기 유학생들은 대부분 육군사관학교에서 초급 사관교육을 받은 후 귀국하였다. 전문 군사학교에 들어가 진일보한 군사학을 공부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 까닭은 유학생의 심리상태나 국내환경과 관계가 깊지만, 한편으로는 일본 정부가 이런저런 제한 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전문 군사학교까지 들어갈 경우 군사학 관련 군사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을 염려한 것도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⁷⁵⁾

청국인 육군 유학생 관련 비판적인 기록도 남아있다. 정욱(程洊)의 『병오동유일기(丙午日本游記)』(1906년)에서는 일본인 사관생도의 경우 여러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군 업무에 투입되었으나, 청국 유학생은 종종 학업을 완성하지 못하고 귀국 조치를 당하였다. 진무학교를 만들어 유학생이 4백여 명이나 있었으나, 이 학교를 졸업하고 호산학교에 입학한 자는 10여 명에 불과하다. 일본의 교육과정에 따르면 호산학교를 졸업한 사람 가운데 뛰어난 학생이 육군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국 유학생 가운데 호산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모두 귀국했지, 대학에 입학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적었다. 비록 진무학교의 규정은 일본 참모부가 만들어 엄격했으나 진무학교 학생들이 모두 중국인이었던 탓에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⁷⁶⁾ 이런 기록은 앞서 호의적인 평가와는 다르다.

2) 해군: 상선(商船)학교와 해군병(海軍兵)학교

양무운동 시기 우수 학생이나 군관을 선발해 외국의 군사학교로 유학을 보내는 사업이 있었다. 청일전쟁 이전 세 차례에 걸쳐 영국 해군유학을 시킨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시기만 하더라도 군사 유학의 중점은 해군이었지 육군은 아니었다. 1876년 이홍장이 변장승(卞長勝) 등 일곱 명을 독일로 유학 보낸 것이 육군유학의 시작이지만, 이 시기는 북양해군 건설을 중시하던 때라서 육군유학은 거의 없었다. 청일전쟁 이후 얼마 동안 해군 건설이 중지되면서 해군 유학생 사업도 없었다. 전쟁의 후유증에서 벗어나면서 해군중건사업이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해군학당의 설립, 해외유학생

이었다. 퇴학 등의 사유로 그만둔 사람 200여 명을 제외하면, 연대와 사관학교를 거쳐 졸업 후 귀국한 유학생은 총 229명이었다. (董守義, 『清代留學運動史』, p.212)

74) 黃福慶, 『清末留日學生』, p.38.

75) 黃福慶, 『清末留日學生』, p.40.

76) 程洊(1906年), 『丙午日本游記』(『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pp.28-30.

의 파견을 통한 해군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얼마 후 중앙정부가 해군 건설을 주도하면서 해군유학은 점차 중앙해군기구에서 관리하였다.⁷⁷⁾ 국내에서는 산둥, 광둥, 복건 등 각 성에 있던 해군학당을 조사한 후 여섯 곳의 해군실습학당을 건설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주판해군위원회는 학부에 장래 유학생을 파견할 경우 해군 유학생을 늘리길 제안했고, 주일공사 호유덕(胡惟德)도 일본 정부에 해군 유학생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다.⁷⁸⁾

해군 인재 육성은 청일전쟁 이전 영국과 프랑스에 유학생을 파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쟁 이후 일본해군 평가가 바뀌면서 일본으로 유학생을 보내려고 계획했다. 일본 유학은 구미에 비해 가깝고도 편리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해군 역시 배울만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1898년 절강성에서 처음 육군 유학생을 파견할 때 각 성에서는 해군 유학생을 파견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북양대신이 안경란(安慶瀾), 채성욱(蔡成煜), 고숙기(高淑琦), 정보승(鄭葆丞), 장영서(張瑛緒), 심곤(沈琨) 등 여섯 명을 일본으로 보내 해군전문학교인 해군병(海軍兵)학교에서 공부시킬 예정이었다. 해군병학교는 일본해군의 사관양성학교로 청국에서도 유명하였다. 그런데 일본해군은 이 학교가 제국 해군 장교만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외국인을 받을 수는 없다는 규정을 내세워 중국인 입학에 거절하였다. 실제로 해군병학교는 천황의 칙령으로 일본해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치된 특수학교로 해군성조차 외국 유학생을 입학시킬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일본 유학계획은 좌절되었다.⁷⁹⁾

오래지 않아 호광총독 장지동이 호북성의 해군 인재들을 육성했는데, 그는 군함과 무기 등을 구매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기업들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일본으로 해군 유학생을 파견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특히 1904년 11월 장지동이 고베의 가와사키 조선소에서 여러 척의 함선을 구매할 때 일본 측이 청국해군 재건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장지동은 구매한 함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관사와 항해사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일본 측에 해군 유학생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일본 외무성과 해군성이 이 문제를 토의해 최종적으로 1905년 2월 해군성은 청국 유학생이 해군병학교에 곧바로 입학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우선 상선학교(商船學校)에서 해군 관련 일반교육을 받은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해군병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을 고려한다는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⁸⁰⁾ 그리고 청국 유학생의 입학 자격으로 일본어에

77) 「署兩江總督端方奏請派水師學堂赴駐滬英船學習片」(張俠·楊志本·羅澍偉·王蘇波·張利民 合編, 『清末海軍史料』, pp.415-416).

78) 馮青, 『中國海軍と近代日中關係』, pp.67-68.

79) 黃福慶, 『清末留日學生』,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75, p.43. 陳悅 編著, 『辛亥·海軍-辛亥革命時期海軍史料簡編』, p.46.

80) 중국 내 한 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해군을 중흥시키고자 학생을 영국으로 파견해

능통한 중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했으며, 정원은 70명으로 하면서 입시 과목과 수업 기간 등을 결정하였다.⁸¹⁾

몇 년 전 주학회의 『동유일기』(1903년)에 이미 상선학교를 참관하며 항해과와 기관과에 모두 7백여 명의 학생이 있다면서 수업 과정을 소개한 바 있다. 항해과는 본 교에서 6단계(매 단계 6개월) 과정을 이수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해군포술훈련소에서 6개월간 포술을 익힌다. 그리고 항해실습을 2년 6개월 실시해 총 5년 6개월이 소요된다. 기관과는 5단계(매 단계 6개월) 과정을 이수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기관공장에서 2년간 공업 기술을 실습한다. 그리고 기선과 기관 운전을 1년간 실습해 총 5년이 지나야 졸업한다고 썼다.⁸²⁾ 이처럼 상선학교를 졸업한 후 해군포병학교 등에서 공부해 소위후보생 자격을 획득한 후에야 해군성 산하의 해군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⁸³⁾ 한편 무전손(繆荃孫)의 『일유회편(日游滙編)』(1903년)에는 해군학교를 설명하면서 “해군에는 해군병학교, 해군기관학교가 있다. 해군병학교는 장교양성학교이며, 기관학교는 기관사를 양성한다.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두 학교를 졸업하면 모두 해군에서 직책을 맡을 수 있다. 만약 해군장성을 희망한다면 해군대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라고 썼다.⁸⁴⁾

1906년 청국 연병처는 전국 해군교육 기관들을 통일적으로 조직하는 과정에서 일본으로 해군 유학생 70명을 보내었다. 연병처는 제1차 해군 유학생의 일본파견 비율을 호광 출신이 약 3분의 1로 하고 그밖에 연태수사학당 22명, 강남수사학당 12명 등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⁸⁵⁾ 4월 27일 유화식(劉華式), 정례경(鄭禮慶), 능소(凌霄) 등 65명의 관비 해군 유학생을 도쿄로 보냈는데, 조금 늦게 출발한 다섯 명을 포함해 모두 70명의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그들은 5월 31일 상선학교 항해과 전공으로 입학해 공부를 시작하였다.⁸⁶⁾ 일본 측에서는 1906년 11월 상선학교에 「청국유학생수업규정(淸國留學生授業規程)」을 만들어 입학조건, 학비, 수학연한, 학습내용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우선 입학 조건은 (1) 연령은 16-25세 사이이고, (2) 체력은 강건하

해군을 학습시켰는데, 장래에 해군사관학교를 설립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이다. 우선 학생 약간 명을 일본에 보내어 해군병학교에서 학습시킬 것을 결정했는데, 현재 일본해군성과 협의 중이다.”(『海軍學生』, 『廣益總報』, 1905年第87期(馬駿杰·吳峰敏·門貴臣 編, 『清末報刊載海軍史料滙編』(兩冊), 山東書報出版社, 2016, p.108))

81) 商船學校 規정은 吳汝綸(1902年), 『東游叢錄』, pp.243-244 도표를 참고.

82) 周學熙(1903年), 『東游日記』, pp.109-110.

83) 黃福慶, 『清末留日學生』, pp.43-44. 陳悅 編著, 『辛亥·海軍-辛亥革命時期海軍史料簡編』, p.46.

84) 繆荃孫(1903年), 『日游滙編』(『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p.18.

85) 일본 해군 유학생의 중국 내 성별·출신지 통계를 보면 兩湖말고는 廣東이 많은 편인데, 지리 환경과 관련된 듯하다. 兩湖지역은 내륙이지만 그 인원수는 오히려 연해 지역보다 많은데, 이것은 충독이던 張之洞이 해군을 중시한 결과이다. (黃福慶, 『清末留日學生』, p.52)

86) 馮青, 『中國海軍と近代日中關係』, p.138.

고 시력과 청력이 완전해야 하며, (3) 소정의 학력을 구비해야 하는 등 세 가지 항목이었다. 그리고 학비는 자비이고, 수학 연한은 예과와 본과 합쳐 모두 2년이며, 성적에 따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었다. 예과와 본과는 입학 후 상선학교의 항해과와 기관과에서 교육을 받았다. 예과생은 기초과목을 중심으로 항해학, 기관학 등을 공부하고, 본과생은 항해운용, 기관운용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교육받았다. 상선학교의 규정은 엄격해 학습성적이 불량하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⁸⁷⁾

1906년 첫 번째 청국 해군 유학생 70명이 일본 상선학교에 들어간 후, 다시 1907년에 두 명의 유학생이 항해를 공부하였다. 1908년에는 36명의 청국 유학생이 입학해 항해를 배우고, 25명의 유학생이 운전기를 배웠다. 1909년 두 명이 더 파견되어 운전기를 배웠다. 이처럼 매년 해군 유학생들을 파견했는데, 그 수는 일정하지 않았다. 일본해군은 청국 유학생들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신식장비를 제공하거나 신식지식을 교육하지 않아 불만을 일으켰다.⁸⁸⁾ 훗날 일본으로 건너가는 사람이 나날이 많아지자 어떤 경우에는 해군학당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으며, 심지어 국내학당에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조차 있었다.⁸⁹⁾ 당시 여진홍(余振興)의 경우를 보면 일본해군에서 공부하던 유학사례를 알 수 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⁹⁰⁾

여진홍은 1903년 의화단운동 때 천진수사학당이 파괴되자 연대에 다시 세워진 연대해군학교 제1기로 들어가 공부하던 중 청국 정부가 일본에 파견하는 해군 유학생으로 선발되었다. 1906년 4월 여진홍 등 22명의 연대해군학교 유학생은 연대에서 상해로 이동한 후 다시 프랑스 상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에 도착한 후 주일 공사관에 가서 청국 공사 양추와 유학생 업무를 주관하는 참찬 왕극민(王克敏)을 만났다. 두 사람은 훈시 중에 학생들이 유학의 기회를 빌어 일본해군의 장점을 배우는 것에 노력하고 아울러 난당(혁명당) 사람과 접촉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만약 위반한 자는 즉시 귀국시킬 것이라 엄명하였다. 이들이 상선학교에 등록했을 때, 이미 학교에는 강남수사학당 제5기 졸업생 12명, 일본의 성성예비학교에서 선발된 36명이 있어서 모두 70명이었다.⁹¹⁾ 여기서 성성학교 출신자도 해군유학에 참가한 사실

87) 馮青, 『中國海軍と近代日中關係』, pp.138-139.

88) 陳悅 編著, 『辛亥·海軍-辛亥革命時期海軍史料簡編』, p.46.

89) 유학생들은 일본 상선학교에 입학해 기초적인 항해과 과정을 공부했고, 그 후 일본 해군포술학교, 해군기관학교에서 공부한 후 마지막으로 일본해군 훈련선 嚴島, 津輕에서 실습하였다. (陳悅, 『船政史』(下), 福建人民出版社, 2016, p.551)

90) 余振興의 「清末新建海軍首次留日, 留英學生經歷」에 대해서는 王玉麟 整理, 『海痴-細說余振興與老海軍』, 河中文化實業有限公司, 2001(陳悅 編著, 『辛亥·海軍-辛亥革命時期海軍史料簡編』, pp.58-64 재인용)

을 확인할 수 있다.⁹²⁾

당시 자신들이 입학한 곳이 해군병학교가 아니라 상선학교라는 사실을 안 후 연대 수사학당과 강남수사학당의 유학생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학교 측에서는, “일본이 처음 청국의 해군 유학생을 받았는데 훈련생이 너무 많았다. 적어도 1년 정도 예비과정이 필요한데 해군병학교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예비과정으로 외국 학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상선학교에서 담당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유학생들은 이런 계획에 불만이 있었지만 이미 일본에 건너왔기에 어쩔 수 없었다. 청국 학생들은 입학한 후 숙소를 상선학교의 실습선인 명치환(明治丸)으로 정하였다. 이 세 개의 돛이 달린 선박은 1874년에 건조되었는데, 당시 일본이 서양에서 가장 일찍 구매한 선박 가운데 하나였다. 본래 메이지 천황이 이 배를 타고 전국을 순시했는데, 1905년 상선학교에 보내어 실습선으로 쓰도록 하였다. 일본의 선박은 실용을 중시하지만 선원의 복지는 홀시했는데, 이에 학생들의 선상생활은 무척 힘들었다.⁹³⁾

1906년 봄 호북성 출신 유중수(劉鍾秀)가 언어 문제로 일본 학생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해 청국 학생들의 공분을 샀다. 유학생 전체가 수업을 거부하고 학교 측에 일본 학생을 징벌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주일 공사관에도 청원을 넣었다. 상선학교 교장인 히라야마 토오지로(平山藤次郎) 대좌가 좋은 말로 청국 학생을 위로해 수업에 복귀하도록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국과 일본 학생을 격리시키도록 조치해 교사 일부에 중국 유학생 전용 교실을 만들었다.

1907년 여름 여진홍 등은 1년간 일본어를 공부한 후 다음 학기에는 해군병학교로 입학할 수 있는가를 질의했으나 분명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유학생들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반응이 없자 귀국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남·북양에서 파견한 34명의 해군 유학생들은 학사일정에 있던 여름방학 여행을 거부하고 9월 집단 귀국하였다. 귀국 후 여진홍은 해군통제 살진빙이 실시한 유학 시험에 합격해 다시 영국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새로운 유학 생활을 경험하는 행운을 얻었다. 한편 상선학교에 남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성성학교 출신의 학생들로 상선학교를 졸업한 후, 1910년 일본 해군병학교에 입학해 1년간 공부한 후 신해혁명 전에 모두 귀국하였다.⁹⁴⁾

91) 陳悅 編著, 『辛亥·海軍-辛亥革命時期海軍史料簡編』, p.58.

92) “주일 梁대신의 요청으로 수사 학생을 선발해 일본에 해군을 학습시키려 파견하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매년 70명을 받아들일 것을 허락하였다. 일본 成城學校 유학생 15명을 학습시키는 것 말고 나머지 55명은 練兵處에서 정하는데, 먼저 연근해 성에서 파견하고 내년에는 내지에서 파견하기로 했다. 각각 직례·산둥 26명, 영·소·환·공(寧蘇皖贛) 14명, 절강·복건 5명, 광둥 5명, 양호(兩湖) 5명씩 보내기로 했다.”(『水師學堂選派學生出洋』, 『教育雜誌』1906年第22期)(馬駿杰·吳峰敏·門貴臣 編, 『清末報刊載海軍史料匯編』(兩冊), p.179))

93) 陳悅 編著, 『辛亥·海軍-辛亥革命時期海軍史料簡編』, p.59.

94) 陳悅 編著, 『辛亥·海軍-辛亥革命時期海軍史料簡編』, p.60.

당시 상선학교를 방문한 좌상중(左湘鍾)의 『동유일기(東遊日記)』(1907년)에는 상선학교의 상황이 나와 있다.

“학교에는 생도가 6백여 명 있는데, 학생이 2백여 명으로 그 가운데 중국인이 70여 명 있다. 학과는 기관과 항해 두 과로 나누어져 있다. 기관과는 외국어, 국문, 이화(理化), 역학, 수학, 전기, 제도, 공학, 관학(罐學), 기기(汽機), 의술, 기업(技業), 병식(兵式), 제조 등이며 5년이면 졸업한다. 항해과는 국문, 외국어, 이화, 산술, 상업, 항해, 의술, 운용(運用), 기업(技業), 병식, 제조 등이며 5년 반이면 졸업한다. 제조장은 세 개의 교실이 있는데, 갑을병(甲乙丙)으로 나눈다. 갑실은 철기(鐵機), 연화(燃火), 발전(發電)이고, 을실은 방전(放電), 수전(收電), 축전(蓄電), 인전(引電)이며, 병실은 운전(運轉)이다. 제조기계공장은 해안가에 있으며 기선이 한 척 정박되어 있는데 마침 수리 중이었다.”⁹⁵⁾

좌상중의 일기(1907년)에는 일본해군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의 하나인 일본해군(병)학교 소개가 있다. 해군학교는 미래 해군 인재를 육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16세 이상 20세 이하의 청년 가운데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한문, 작문, 영어, 수학 지리, 역사, 화학, 도화(圖畵) 등 시험에 고루 합격해야 한다. 입학하면 곧 병적에 편입되는데 용돈, 피복, 학비가 지급된다. 병학과와 보통과로 나누어진다. 병학과의 경우 포술(炮術), 운용술(運用術), 수전술(水電術), 항해술(航海術), 기관술(機關術) 등을 배우고 3년이면 졸업한다고 기록했다.⁹⁶⁾ 황준헌의 『일본국지』에도 해군병학교가 소개되었다. 이에 따르면 병학교는 교장과 교사 및 조교가 있으며, 학사는 유년, 장년, 전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입학 후에는 세분화된 과목에 따라 수업을 하고, 매 시기마다 크고 작은 시험을 치른다. 학교 내에는 관학생과 사학생으로 나뉘는데, 관학생은 평생 해군에 종사할 것을 서약하고 입학하므로 모든 비용을 정부에서 지급하였다. 그중 우수한 학생은 유럽으로 유학시키거나 공사관에 파견해 열강의 병제를 연구한다고 썼다.⁹⁷⁾ 뿐만 아니라 해군병학교는 이미 1881년 조선 정부에서 파견한 조사시찰단의 기록에도 나타난다. 보고서에는 일반사병도 육군과 달리 지원방식으로 충원한다든지, 유경력자를 우대하고 해군 복무를 하면 봉급을 후하게 준다고 했다. 도쿄 주변의 바닷가에 군함 모형의 교사가 있으며, 훈련이 엄격해 함부로 교사나 군함 주변을 이탈할 수 없다고 했다.⁹⁸⁾ 청국 관신들이 군사학교 시찰 과정에서 자주 방문했던 해군병

95) 左湘鍾(1907年/1908年), 『談瀛錄』(『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pp.154-155.

96) 左湘鍾(1907年/1908年), 『談瀛錄』, p.157.

97) 黃遵憲(1887年), 『日本國志』(中), (『走向世界叢書』, 岳麓書社, 2016, pp.903-905.

98) 강문형 등 지음, 장진엽 옮김, 『문견사건(聞見事件)』, 일본국문견조건(日本國聞見條件)』(조사시찰단기록 번역총서 18), 보고사, 2020, pp.157-158, pp.215-217.

학교는 청국 유학생이 입학하길 갈망하던 학교였으나 쉽게 허락되지 않았다.

해군 유학생이 상선학교에서 2년간 학습을 수료하고 나서 고도의 해군 군사교육과 실지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앞의 여진홍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선학교의 청국 유학생 32명이 집단귀국하거나 퇴학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청국 측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군 유학생이 일본 군함에서 승선 실습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청국 유학생의 학습 태도를 비판하자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다. 결국 일본 해군성은 청국 유학생이 상선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해군 포술학교와 해군수뢰학교에서 일정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 얼마 동안 제국 군함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조치해 갈등이 봉합되었다.⁹⁹⁾

이에 따라 1909년 청일정부는 협정을 맺어 청국 유학생이 상선학교 졸업 후 희망할 경우 해군포술(砲術)학교와 해군공기(工機)학교에 진학해 수뢰술, 항해술 등의 교육과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제국해군청국학생교육규정(在帝國海軍清國學生教育規程)」과 「청국학생관리규정(清國學生管理規程)」에 따르면, 상선학교의 유학생들은 항해과와 기관과로 나누어 공부한다. 항해과 학생은 상선학교를 졸업한 후 해군포술학교에 입학해 6개월의 수뢰술을 배운다. 기관과의 학생은 해군공기(工機)학교에 들어가 6개월의 교육을 받는다. 이 교육 기간 중에 반드시 해군포술학교에서 일정 기간 총대(銃隊)교육을 받는다. 이런 교육과정이 끝나면 해군 소위후보생 혹은 해군 기관후보생의 자격을 얻은 후에 함정을 타고 6개월의 실제 연습을 받는다.¹⁰⁰⁾ 이에 따라 1910년 11월 1일 제1기 해군 유학생 사강철(謝剛哲), 유화식(劉華式) 등 여덟 명은 해군포술학교에 입학해 항해과를 전공하였다.¹⁰¹⁾ 한때 승함 문제로 퇴학 사건이 일어났는데, 쌍방 간에 타협해 심각한 사고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해군포술학교에서 공부한 청국 유학생은 84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78명이 실습 항해 등 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였다. 해군포술학교 제1기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들은 구미에 유학한 학생들에 못지않았다. 그들은 1911년 5월 일본 군함에서의 실습 훈련을 모두 마치고 졸업증서를 받았다. 졸업생들은 귀국하기 전에 일본 해군성의 허락을 받아 해군교육본부, 해군함정본부, 수로부, 항무부, 해병단 등을 견학하였다. 하지만 기관과 학생 25명은 해군포술학교 재학 중에 신해혁명이 발발해 도중에

99) 馮青, 『中國海軍と近代日中關係』, pp.139-142.

100) 黃福慶, 『清末留日學生』, pp.44-45.

101) “우리나라 해군 학생 중에 商船學校에 유학한 사람은 대략 5백여 명(?)인데, 3월 초 졸업한 사람이 28명으로 공사가 이미 일본 포선학교에 보내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해군 학생이 일본해군에 들어간 발단으로 商船學校는 해군전문학교가 아니고 해군예비학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금 28명이 해군전문학교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중국해군의 앞날을 미리 축하할 만하다.”(『海軍學生之新紀念』, 『北洋兵事雜誌』, 1910年第1期)(해군사료회편 p.6)

귀국함으로서 최종적으로 졸업하지 못했다.¹⁰²⁾ 혹자는 중국인이 해군병학교에도 입학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듯싶다.

일본에 건너가 해군을 공부한 청국 유학생의 수는 많지 않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과거 청국의 해군 인제는 대부분 유럽으로 떠났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유학생이 해군을 공부하는 조건이 까다롭고 엄격해 유학가길 원하는 학생이 소수였다. 결국 1909년 여름 주일공사 호유덕(胡維德)은 각 성의 해군 유학생 희망자가 매우 적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에 조회해 다음 해부터는 학생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청일 양국이 어렵게 만든 해군훈련계획은 중지되었다. 모두 네 차례 해군 유학생 100여 명을 파견했으나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¹⁰³⁾ 해군 관련 유학생은 당시 일본에 유학한 군사 유학생 중에서 수적으로 일부만을 차지하지만 장래 중화민국 해군을 담당할 인재를 육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당시 청국 정부가 해군 유학생을 선발해 파견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한 사실도 기억할만하다.¹⁰⁴⁾

덧붙이자면, 앞서 언급했듯이 1909년 말 재순과 살진빙이 유럽에 건너가 해군을 고찰할 때 파옥조(巴玉藻), 엽재복(葉在馥) 등 각 학교에서 선발한 23명의 해군 유학생을 데리고 영국으로 건너갔다. 그 가운데 연태해군학당, 강남수사학당, 광동수사학당의 학생이 가장 많았고, 복건선정학당의 교육상황은 좋지 않아 겨우 한 사람만이 선발되었다. 이것이 신해혁명 이전 서양으로 유학시킨 마지막 중국 학생들이었다.¹⁰⁵⁾

4. 나오며

청일전쟁 후 국방건설에서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존 서양을 모범으로 배우

102) 馮青, 『中國海軍と近代日中關係』, p.142. 「해군포술학교 4기 유일해군학생 명단」(p.143), 「해군포술학교에 입학한 중국유학생 현황」(p.144)은 馮青의 책을 참고. 「일본 상선학교와 해군포술학교를 졸업한 명단」(黃福慶, 『清末留日學生』, pp.45-51) 참고.

103) 黃福慶, 『清末留日學生』, p.45.

104) 馮青에 따르면, 해군유학의 한두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으로 가는 해군유학생의 선발에 호광지방을 다수 뽑아 종래 복건파와 광동파의 독점을 타파하였다. 둘째, 일본에 유학해 해군을 공부한 사람들은 중화민국 초기 북경 정부의 해군기구, 해군학교의 고관과 교원이 되어, 기존 영국과 프랑스 유학과를 중심으로 한 중국해군의 지도층에 일본 유학파가 새롭게 진출하였다. (馮青, 『中國海軍と近代日中關係』, pp.144-145)

105) 陳悅, 『船政史』(下), pp.550-551. 姜鳴 編著, 『中國近代海軍史事日誌』(下), p.269. 영국 해군 유학생의 근황에 관해서는 「留英海軍學生升學」, 『華商聯合報』, 1910年第7期(馬駿杰·吳峰敏·門貴臣 編, 『清末報刊載海軍史料匯編』(兩冊), pp.161-162)에도 언급되었다. 영국 해군 유학생의 근황에 관해서는 「籌辦海軍處奏爲留學英國海軍畢業學生考試成績比照成案量予獎勵折」, 『清末海軍史料』, pp.420-421에도 언급되었다.

던 방식에서 일본을 모델로 삼으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일본의 제도를 참고해 군사 기구를 재정비하거나, 일본에서 새로운 군함이나 무기를 구입하거나, 일본인 군사 교습을 초빙해 여러 군사학교에 파견한 일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국 관신들은 일본 측 요청으로 일본군 군사훈련을 관람했을 뿐만 아니라 병기공장과 군사학교를 참관하면서 학제, 설비, 교과 내용 등을 파악하였다. 그들이 방문한 군사와 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소개와 설명이 동유일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육군 분야 시찰은 정홍신과 심익청의 일본방문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일본의 군사 훈련을 참관하기 위해 건너갔다. 정홍신은 고위급 무관이었고, 심익청은 비록 문관이었지만 복건수사학당의 책임자로 해군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밖에 다수의 관신들이 일본의 군사 관련 시설들을 둘러보았다. 메이지유신의 뚜렷한 성과 가운데 하나는 군사 분야였으며 무엇보다 육군에서 두드러졌다. 무관 출신이 아닌 경우에는 주로 군사학교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당연히 군사력의 중요성을 인정했지만 대체로 군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중국애국 사상에 기초한 일본의 국민교육에 주목하였다.

정홍신일행은 육군말고도 해군을 시찰했는데, 군함을 탑승하거나 조선소를 방문하면서 청일해전 때 실감했던 일본해군의 무력을 확인하였다. 몇몇 관신들 역시 해군 학교를 방문한 기록들이 남아있다. 무엇보다 청국해군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살진빙의 제안으로 해외 해군 시찰을 추진한 사실이 인상적이다. 1910년 8월 재순, 살진빙 등은 상해를 출발해 일본을 경유해 미국에서 해군을 고찰하고 군함을 구매하였다. 다시 일본으로 건너와 해군조직기구를 살피면서 역시 군함을 구매하였다. 그 결과 청국해군은 부족하나마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고 주판해군사무처를 해군부로 바꾸었으며 재순이 해군대신, 살진빙이 해군통제가 되는 성과가 있었다.

1898년 6월 네 명의 절강군사학교 학생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이것이 첫 번째 성급단위의 학생들이 군사 유학한 일이다. 그 후 거의 모든 중국 각 성에서 학생들을 보내었다. 해마다 육군 유학생이 증가하자 입학 인원을 제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성의 무비학당 설립이 증가면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유학생은 계속 늘어났다. 도쿄에 있던 성성학교는 일본인이 1885년에 만든 사립학교로 육군예비학교이다. 이 학교는 중국인 육군 유학생을 위한 군사예비교육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고 가장 오랫동안 이루어진 학교이다. 그리고 1903년 7월 진무학교가 세워지자 성성학교 학생들은 모두 이 학교로 옮겨와 공부하였다. 그 후 성성학교는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으나 육군학교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당시 군사 유학생의 다수는 육군유학이었으며, 해군유학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1899년 초 청국 정부는 중국 청년의 해군유학을 위해 일본 정부와 교섭해 우선 안경란(安慶瀾) 등 다섯 명을 해군병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일본 해군성의 권한 밖이어서 이들 학생의 입학은 거부되었다. 일본 해군성이 청국 유학생의 해군병학교 입학을 기피한다는 사실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해군 유학생들은 상선학교에 입학해 해군교육을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일본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오히려 영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비용 문제로 극소수의 선발 학생만이 갈 수 있었다. 양무운동 시기 해군 중심의 구미 유학이 청말신정 시기 육군 중심의 일본 유학으로 무게의 축이 이동했지만, 이들 육군과 해군 유학생들은 신해혁명과 중화민국의 건립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¹⁰⁶⁾

【참고문헌】

<기본사료>

- 鍾叔河 主篇, 『走向世界叢書』第1輯(第1-10冊), 岳麓書社, 1985.
 何如璋 等, 『甲午以前日本游記五種』(『走向世界叢書』第1輯 第3冊), 岳麓書社, 1985.
 戴鴻慈, 『出使九國日記』(『走向世界叢書』第1輯 第9冊), 岳麓書社, 1985.
 載 澤, 『考察政治日記』(『走向世界叢書』第1輯 第9冊), 岳麓書社, 1985.
 鍾叔河·曾德明·楊雲輝 主篇, 『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羅振玉(1901-1902年), 『扶桑兩月記』(『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羅振玉(1909年), 『扶桑再游記』(『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呂珮芬(1907年), 『東瀛參觀學校記』(『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劉學詢(1899年), 『考察商務日記』(『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凌文淵(1903年), 『籥盒東游日記』(『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李濬之(1905年), 『東隅瑣記』(『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繆荃孫(1903年), 『日游滙編』(『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文 愷(1906-1907年), 『東游日記』(『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盛宣懷(1908年), 『愚齋談瀛錄』(『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雙 燾(1902年), 『東瀛小識』(『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楊泰階(1906-1907年), 『東游日記』(『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嚴 修(1902年/1904年), 『東游日記』(『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吳汝綸(1902年), 『東游叢錄』(『走向世界叢書』(一百種)), 岳麓書社, 2016.

106) 끝으로 군사 시찰에 참여했던 관신들의 귀국 후 역할이나, 군사 유학한 청년들의 귀국 후 영향력을 전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개별적인 인물에 관한 소개가 주를 이루는 정도인데,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王景禧(1903年),『日游筆記』(『走向世界叢書』(一百種)),岳麓書社,2016.
- 王之春(1879年),『談瀛錄』(『走向世界叢書』(一百種)),岳麓書社,2016.
- 姚鵬圖(1903年),『扶桑百八吟』(『走向世界叢書』(一百種)),岳麓書社,2016.
- 張 謇(1903年),『癸卯東游日記』(『走向世界叢書』(一百種)),岳麓書社,2016.
- 程 涇(1906年),『丙午日本游記』(『走向世界叢書』(一百種)),岳麓書社,2016.
- 丁鴻臣(1899年),『東瀛閱操日記』(『走向世界叢書』(一百種)),岳麓書社,2016.
- 左湘鍾(1907年/1908年),『談瀛錄』(『走向世界叢書』(一百種)),岳麓書社,2016.
- 周學熙(1903年),『東游日記』(『走向世界叢書』(一百種)),岳麓書社,2016.
- 陳道華(1908年),『日京竹枝詞』(『走向世界叢書』(一百種)),岳麓書社,2016.
- 沈翊清(1899年),『東游日記』(『走向世界叢書』(一百種)),岳麓書社,2016.
- 韓國鈞(1905年),『實業界之九十日』(『走向世界叢書』(一百種)),岳麓書社,2016.
- 黃 璟(1902年),『考察農務日記』(『走向世界叢書』(一百種)),岳麓書社,2016.
- 黃遵憲(1887年),『日本國志』(上中下), (『走向世界叢書』), 岳麓書社, 2016.
- 王宝平 主編,『晚清東游日記匯編』(兩冊),上海古籍出版社,2004.
- 姜 鳴 編著,『中國近代海軍史事日誌』,三聯書店,1994.
- 馬駿杰·吳峰敏·門貴臣 編,『清末報刊載海軍史料匯編』(兩冊),山東畫報出版社,2016.
- 張 俠·楊志本·羅樹偉·王蘇波·張利民 合編,『清末海軍史料』,海洋出版社,1982.
- 陳 悅 編著,『辛亥·海軍-辛亥革命時期海軍史料簡編』,山東畫報出版社,2011.

<단행본>

- 박영준,『해군의 탄생과 근대일본』,그물,2014.
- 연안성 지음,한영혜 옮김,『신산(神山)을 찾아 동쪽으로 향하네』,일조각,2005.
- 왕효추 지음,신승하 옮김,『근대 중국과 일본-타산지석의 역사』,고려대학교 출판부,2002.
- 조세현,『천하의 바다에서 국가의 바다로』,일조각,2016.
- 첸 강·후진초 지음,이정선·김승룡 옮김,『유미유동-청나라 정부의 조기유학 프로젝트』,시니북스,2005.
- 허동현,『근대한일관계사연구: 조사시찰단의 일본관과 국가구상』,국학자료원,2000.
- 姜 鳴,『龍旗飄揚의艦隊-中國近代海軍興衰史』,三聯書店,2002.
- 瞿立鶴,『清末留學教育』,三民書局,1973.
- 董守義,『清代留學運動史』,遼寧人民出版社,1985.
- 尚小明,『留日學生與清末新政』,江西教育出版社,2003.
- 舒新城,『近代中國留學史』,中華書局·上海書店,1989.
- 孫雪梅,『清末民初中國人的日本觀-以直隸省爲中心』,天津人民出版社,2001.
- 沈 岩,『船政學堂』,書林,2012.
- 呂順長,『清末浙江與日本』,上海古籍出版社,2001.
- 呂順長,『清末中日教育文化交流之研究』,商務印書館,2012.
- 吳 霓,『中國人留學史話』,商務印書館,1997.

- 王曉秋,『近代中日啓示錄』,北京出版社,1987.
- 王曉秋,『近代中日文化交流史』,中華書局,2000.
- 嚴安生 著,陳言 譯,『靈臺無計逃神矢——近代中國人留日精神史』,三聯書店,2018.
- 李書緯,『少年行: 1840-1911 晚清留學生歷史現場』,南方出版傳媒·廣東人民出版社,2016.
- 李喜所,『近代留學生與中外文化』,天津人民出版社,1992.
- 張海林 編著,『近代中外文化交流史』,南京大學出版社,2003.
- 鍾叔河,『從東方到西方——走向世界叢書敘論集』,岳麓書社,2002.
- 陳瓊瑩,『清季留學政策初探』,文史哲出版社,1989.
- 陳室如,『近代域外遊記研究(1840-1945)』,文津出版社,2008.
- 陳 悅,『船政史』(上·下),福建人民出版社,2016.
- 黃福慶,『清末留日學生』,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1975.
- [日]實藤惠秀 著,譚汝謙·林啓彥 譯,『中國人留學日本史』,三聯書店,1983.
- [日]安岡昭男 著,胡連成 譯,『明治前期日中關係史研究』,福建人民出版社,2007.
- [美]任達(Douglas R. Reynolds) 著,李仲賢 譯,『新政革命與日本-中國, 1898-1912』,江蘇人民出版社,1998.
- 神谷大介,『幕末の海軍-明治維新への航跡』,吉川弘文館,2018.
- 野村實,『日本海軍の歴史』,吉川弘文館,2002.
- 外山三郎,『日本海軍史』,吉川弘文館,2013.
- 佐藤三郎,『中国人の見た明治日本: 東遊日記の研究』,東方書店,2003.
- 馮 青,『中國海軍と近代日中關係』,錦正社,2011.

<논문>

- 조세현,「청말 해군유학생이 경험한 유럽의 해군문명」,『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21호,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9.
- 조세현,「청말 설복성의 출사일기에 나타난 해양문명」,『동북아문화연구』, 제61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9.
- 代 祥·葛維春,「清末赴日考察官紳的教育思想述略——以‘東遊日記’爲中心」,『江西社會科學』, 2012年第7期.
- 楊 早,「“文明國”游記-1903-1907年中國官紳眼中的日本」,『華南師範大學學報』, 2014年第2期.
- 楊湯琛,「錯位下的日本想像-甲午前後清人士的日本游記研究」,『中國文學研究』, 2013年第4期.
- 溫曉靜,「黃慶澄‘東遊日記’及其日本觀」,『溫州職業技術學院學報』, 2019年12月.
- 莊安正,「張謇東游與‘東游日記」,『安徽師範大學報』, 1995年第2期.
- 周啓乾,「晚清知識分子日本觀的考察」,『日本學刊』, 1997年第6期.
- 周至碩,「張謇眼中的日本」,『檔案建設』, 2016年2月.
- 夏 英,「清末赴日考察官紳的實業教育課程觀述略」,『教育史論』, 2015年第10期.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清末, 東遊日記, 軍事視察, 軍事留學, 陸軍, 海軍				
	영문	The late Qing Dynasty, The Diary of the Journey to the East, Inspection of military, Study in military forces, Army, Navy				
<div>Inspection of and Study in Japanese Military Forces by Chinese People after the Sino-Japanese War</div> <div>Cho, Se-Hyun</div> <p>On of distinct characteristic of military force construction after the Sino-Japanese War is that China made an effort to make a model of Japan breaking from the previous method to learn the West. China reformed military organizations by referring to the systems of Japan during a short period of time or purchased new warships or weapons from Japan and invited a Japanese military instructor and dispatched to the military school in China. Officials of the Qing Dynasty watched military training of Japanese forces at the request of Japan and examined education system, facilities and curriculum by observing armament factories and military schools. The whole introduction and explanation of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related to military and education they visited are included the Diary of the Journey to the East. For the reason, the Diary of the Journey to the East is an important material for researching not only inspection of Japan by the people of Qing Dynasty but their study in Japan. This paper took a quick look at the status of inspection of military (army, navy), and arranged and analyzed focusing on their study in military forces (army, navy).</p>						
저 자	조세현 / 曹世鉉 / Cho, Se-Hyun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1.08.02.	심 사 일	2021.08.26.	게재확정일	2021.09.16.